

“사장님, 저한테 왜 물어보셨어요?”



*“그래?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김 팀장도 박 팀장이랑 같은 생각이야?”*

오늘 회의 때 사장의 질문이다. 분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나를 비롯한 영업팀장 전원이 호출당했다. 다음 분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선임인 박 팀장이 설명했지만, 경쟁사로 인해 촉발된 출혈 경쟁이 난무한 상황에서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 이에 눈에는 눈, 우리도 결단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꺼림칙한 얼굴이다.

우리 사장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전혀 몰라서 물어볼 일은 없을 터, 주로 본인의 의중을 점검하거나 밑에 사람의 생각을 떠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장의 질문이 좀 짜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질문하셨다. “김 팀장 생각은 뭐야?” 난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대답하기 싫어 의식적으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0분 넘게 신이 나서 본인 생각을 설명하는 거였다. ‘이거 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사장님께 질문이란 그저 내용 좀 더 확인하거나 자기 뜻을 관철하는 용도였다. 아예 들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질문 태도는 정말 화를 유발한다. 내가 또 이런 상황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장님! 그냥 본인 생각을 말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I 필자: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café.naver.com/teamleadersclub)